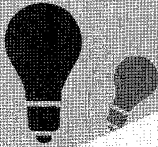


겨울철 전기절약 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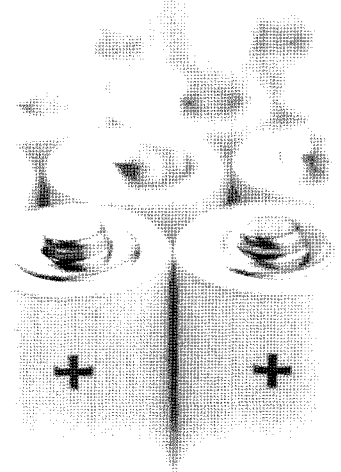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전기를 이용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성이나 안전성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쉬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제품들은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하루 사용량 7314만kW에 육박하는 전력량을 사용하고 있어 한계치에 근접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방전사태를 예상하고 있으며 2014년 추가원공 발전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조금이라도 새는 전력을 막아야 할 것이며,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사용하지 않는 가전 제품은 코드를 뽑아 놓자

세탁기, TV, 오디오, 헤어드라이어, 비디오, 충전기, 컴퓨터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코드를 뽑아 전력 소모를 막는다. 컴퓨터를 3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끄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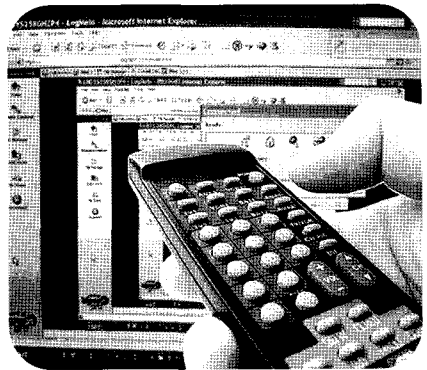


2) 전기장판은 일정온도가 유지되면 단계적으로 낮추어 사용하자

전기장판은 온도조절과 연결상태에 따라 전력 소모량이 달라지는 온열제품으로 온도조절장치와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안전하고 정밀하게 되어 있는지 살펴야 하며, 온열제품의 처음 사용시에는 30분정도 높은 온도를 유지하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 단계를 낮게 조절해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전원을 OFF시키거나 아주 낮게 조절하는 방법으로 온도를 조절한다면 전기절약에 많은 도움이 된다.

3) 리모컨 사용을 자제하자

원하는 TV프로그램을 정한 후, 그 프로그램만 시청한다. 특히 수시로 채널을 변경하거나 자주 켜다 껐다 하지 않고 시청 프로나 시청시간을 선택해 리모컨 사용을 최소화한다.



4) 다림질은 효율적으로 하자

젖은 옷은 다 말려서 다리고, 옷감을 종류별로 모아서 다림질한다. 구김이 많은 부분만 다림질하고 나머지 부분은 물 스프레이 등을 뿌려 옷걸이에 걸어 주름이 펴지도록 한다. 스위치를 끄고 남은 열은 손수건같이 작은 것을 다린다.

5) 믹서기 사용을 자제하자

마늘을 찧거나 식사대용 죽을 만들 경우 믹서기 대신 마늘즙 짜는 기구나 찧을 수 있는 그릇, 강판 등을 이용한다.

6) 충전 배터리는 충전시간 엄수

배터리의 충전시간을 초과하면 배터리도 상하고 전기요금도 더 든다. 휴대전화나 청소기, 면도기 등을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하다 보면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전지의 사용시간이 급격히 줄어든다.

7) 집안에 센서 전기기구와 램프를 이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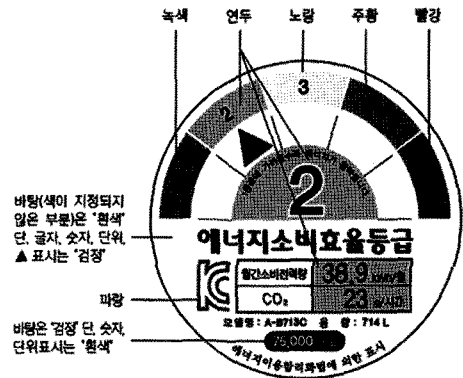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전력소비의 18%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기기이며, 빛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과 공기처럼 생활의 일부가 되어진 만큼 전체 사용량에서 조명기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내 조명으로 사용되는 백열등을 전구식형광등기구로 바꾸어 주는 것만으로 70%이상의 절전효과를 볼 수 있고 최근 LED조명이 각광을 받으면서 수명과 전기절약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명기기로 대체되고 있지만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되어 대체의 비중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사람이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는 곳인 현관이라든가 계단, 창고 같은 곳에 센서 전기기구나 타임 스위치를 설치하고 너무 밝은 빛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밝기의 램프로 바꾸고, 두 개의 형광등이 있는 경우 하나는 빼놓는다.

한 달에 한 번쯤 램프주위를 깨끗이 닦아주면 밝기를 훨씬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조명에 고조도 반사재를 달 경우 조건에 따라서 25~35% 정도 절전 효과가 있다.

8) 가전제품 구입시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것으로 구입하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까지 나뉘는데, 효율이 높은 1등급이 가장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은 제품이다. 1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5등급 제품에 비해 30~45%의 에너지가 절약된다.



9) TV 볼륨을 낮추어 사용하자

TV 소리만 줄여도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다. 볼륨이나 화면 밝기는 전력 소비와 비례한다.

10) 냉동실은 다닥다닥, 냉장실은 띄엄띄엄 채워서 사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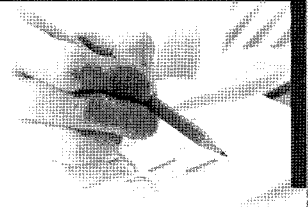
음식물을 넣는 요령도 전기 요금과 직결된다. 냉동실은 전도로 냉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내용물은 가급적 간격이 없게 넣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 거꾸로 냉장실은 차가운 공기가 끌고루 퍼져야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음식물을 넣는 것이 좋다. 빼곡히 채우면 공기 순환이 잘안돼 전력 소비가 늘어난다. 따뜻한 음식을 곧바로 넣어도 식히는 데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

11) 에어컨 켤때는 커튼을 꼭 하자

에어컨 한대의 전력소모량은 선풍기 30대와 맞먹는다. 커튼이나 발 등으로 햇빛을 차단하면 더 효과적이다. 에어컨 필터나 진공청소기는 자주 청소해야 전기를 덜 먹는다.

12) 모니터는 부팅 1분 뒤에 키자

컴퓨터를 켤 때 본체와 모니터 전원을 동시에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1분 시차를 두고 모니터를 켜는 것이 좋다. 부팅하는 동안 모니터가 부팅 진행 과정을 표시하면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13) 세탁기에 빨랫감은 적당한 양을 넣어 세탁하자

세탁물이 많으나 적으나 세탁기를 한번 사용할 때 소모되는 전력량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아서 한 꺼번에 세탁하는 것이 좋다. 행굼 코스 전에 탈수를 한 번 하고 나서 행구면 시간과 물이 절약 된다. 탈수 시간은 3분이면 충분하다. 물온도는 60℃가 넘으면 차이가 없어 30~40℃면 충분하다. 찬물에 그대로 세탁하는 것도 좋다.

14) 식품건조기의 사용을 자제하자

식품건조기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자제품으로 10시간이나 20시간씩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만 본래의 목적인 건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15) 가습기 대신 젖은 빨래를 이용해 실내 건조를 막는다.

16)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을 때는 따뜻한 물을 이용한다.

전기를 절약하고 실천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가계에 도움이 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날씨가 추운 요즘 전기의 사용량이 배가 되고 있지만 그 사용량이나 비용은 다음달이나 되어야 알기 때문에 피부로 직접 와 닿지 않게 되는데 생활속 작은 실천으로 전기절약의 습관을 길러보는 것이 좋다.

